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⑥⑧

權 五 焄
本紙편집인

191. 하마자분蝦蟆自焚

금金나라가 망하자 서주西州에서는 귀순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홀로 조하원수洮河元帥 곽하마郭蝦蟆가 외로운 성을 굳게 지켰다. 원元나라 군사가 공격해오자 곽하마가 지탱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고을안의 금은과 구리 · 쇠를 거두어 모아 함께 녹여 포砲를 만들어 적을 공격하고 소와 말을 잡아 군사를 먹였다. 또 여사廬舍와 쌓아놓은 노적을 불태우게 하고는 ‘ 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가릴 것이 없다 ’하면서 날로 혈전을 벌이니 군사의 사상자가 많아졌다. 이윽고 고을의 관아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라 명해서는 불길이 치열해져 장사를 거느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 불이 완전히 번지기를 기다리는데 성이 함락되어 군사가 메어져 들어왔다.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오래되어 사졸 중에는 화살이 떨어지자 불길속에 몸을 던지는 자도 있었다. 곽하마는 홀로 크게 풀을 쌓은 데로 올라가 문짝으로 몸을 가리고 화살 이삼백발을 쏘니 명중하지 않는 화살이 없었는데 화살이 떨어지자 활과 칼을 불속에 던지고 스스로 타죽으니 성안에서 즐겨 항복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때 곽하마의 나이 45세인데 뒤에 지방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했다.

곽하마는 금나라 회주會州 사람인데 대대로 보갑사생수保甲射生手였다. 그 형 곽록대郭祿大와 함께 활을 잘 쏘아 응모하였고 하夏나라가 회주를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니 형제가 포로로 잡혔다. 그후 탈출을 모의하다 일이 발각되어 형 곽록대는 피살하고 곽하마는 홀로 탈신해 돌아왔다. 이후 회주를 수복하고 공주鞏州를 평정하여 거듭된 전공으로 지봉상부사知鳳翔府事를 거쳐 본로병마도총관원수本路兵馬都摠管元帥 · 좌도감겸행란회도하원수부사左都監兼行蘭會洮河元帥府事에 이르러 금나라가 망할 때 운명을 같이했다.

제목 하마자분蝦蟆自焚은 곽하마가 스스로 불타 죽었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가련금말도하수可憐金末洮河帥 : 가련하다, 금말金末의 도하원수여
독수고성역부지獨守孤城力不支 : 홀로 외로운 성 지켜 힘이 부치니
향사잉령분적취餉士仍令焚積聚 : 군사를 먹이고는 인하여 노적을 태우게 하여
종언혈전사위기終焉血戰死爲期 : 마침내 혈전으로 죽을 것을 기약했네
주해번신세이경州廨燔薪勢已傾 : 관아에 나무 쌓아 태우니 세는 이미 기울고
분신오전공경생奮身鏖戰共輕生 : 분발하여 극렬히 싸움에 모두가 삶이 가벼운데
합성자폐무유혈闔城自斃無遺孑 : 성을 처닫고 스스로 불타 홀몸 하나 남기지 않았으되
천재유전불후명千載流傳不朽名 : 천년을 흘러 전하는 것은 이지러지지 않는 이름이네

192. 굴와당적窟哇當賊

중국 원元나라 때의 이야기이다. 공온굴와孔溫窟哇가 태조太祖(징기스칸)의 휘하에 있으면서 자주 공을 세웠다. 만족蠻族이 모반했을 때 태조가 6기騎를 데리고 달려갔는데 중도에 식량이 떨어지니 낙타를 사로잡아 이를 구워서 태조가 먹게 하였다. 적에게 추격을 당해 화급하게 되었는데 태조의 말이 쓰러져 죽었다. 5기가 서로 돌아보며 경악해 떠는데 공온굴와가 타고 있던 말로 태조를 구하고 자신은 추격군을 당하다 죽었는데 태조는 그 때문에 모면했다.

그 아들 목화려木華黎가 충용하다는 일컬음이 있었는데 일찍이 태조군이 불리함에 떨어진 데다가 큰 눈이 마침 내려 아장牙帳(대장군의 장막)이 있을 곳을 잃고 태조가 초택草澤 가운데 누워 있게 되었다. 목화려가 박이출博爾朮과 더불어 모전毛氈을 펼쳐서는 태조를 가려주었는데 저물녘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는 태조가 30여기를 거느리고 계곡을 지나는데 나무가 우거진 사이에서 도적의 무리가 돌출하여 쏘아대는 화살이 비오듯했다. 목화려가 활을 힘껏 당겨 적을 향해 날리니 세 발이 세 명을 죽였다. 그리고 서서히 말의 천韉(안장 대신 말의 등에 덮는 가죽)을 풀어서는 두 손으로 펼쳐 태조를 일산과 같이 가렸는데 휘하의 기병이 적을 사살하니 마침내 적이 시체를 이끌고 물러갔다.

병인丙寅(몽고 태조 1년, 1206)에 태조가 황제로 즉위하자 목화려와 박이출을 좌우만호左右萬戶로 삼으면서 ‘ 나라안이 평정된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였고 정축丁丑(1217)에 조칙詔勅을 내려 태사국왕太師國王을 봉하고 서권誓券(공신에게 녹을 주는 증서)과 황금인黃金印을 하사하면서 ‘ 자손이 전하여 나라를 지키면서 대대로 내려가 끊어짐이 없게 하라 ’하였다.

제목 굴와당적窟哇當賊은 공온굴와가 몸으로 도적을 당했다는 뜻이다. 공온굴와는 원나라 사람으로 성이 찰랄아札剌兒이고 원 태조 징기스칸의 처족妻族으로서 그 휘하에 들어가 충성했다. 공온굴와의 아들 목화려는 역시 성이 찰랄아이고 활을 잘 쏘았으며 태조 징기스칸을 섬겨 자주 금金나라를 정벌해 공을 세웠다. 군중에 있은 것이 거의 40년이었고 뒤에 노국왕魯國王에 추봉되어 충무忠武의 시호를 받았다. 박이출은 몽고인으로 성이 아아랄阿兒剌이며 태조가 잠저시潛邸時에 어렵고 위태로움을 같이 하여 지위가 여러 장수의 위에 있었으며 사후에 무충武忠의 시호를 받았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위신사주분고충委身事主奮孤忠 : 몸을 맡겨 임금을 섬김에 외로운 충성을 분발하고
초매경륜삭립공草昧經綸數立功 : 창업초에 경륜으로 자주 공을 세웠네
헌마자당추기사獻馬自當追騎死 : 말을 바치고 몸으로 적을 당해 추격병에 죽으니
일시훈렬숙여공一時勳烈孰如公 : 일시의 훈렬이 누가 공과 같을손가
유아충용조지명有兒忠勇早知名 : 그 아들이 충용하여 일찍 이름이 나더니
휘기장전출지성麾騎張氈出至誠 : 휘하의 기병으로 모전을 펼쳐 출천의 지성 보였네
사권자손전부절賜券子孫傳不節 : 녹권錄券을 내려 자손이 끊임없이 전하게 하니
원공단합형수영元功端合亨殊榮 : 선후대의 공훈으로 별다른 영광이 형통하였네

193. 불화역투不華力鬪

여영汝穎에서 도적이 일어나 창궐하니 회동부사淮東副使 저불화褚不華가 회안淮安에 이르러 극력으로 방어할 계획을 세웠다. 적이 이르자 이를 막아 싸워 많이 베어 죽이고는 유갑劉甲을 청하여 한신성韓信城을 지키면서 성원聲援케 하고 조정에 글을 올려 총병摠兵 두요逗撓의 죄를 탄핵하였다.

조정에서는 저불화를 염방사廉訪使로 승진시켰고 유갑은 적과 전투하면 문득 승리하였다. 총병 두요는 자기를 탄핵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유갑에게 격문檄文을 보내 별장別將으로서 적을 치라 하였다. 유갑이 성을 떠나자 곧 성은 함락되고 적은 참호를 파서 건수채揵水寨와 맞물려 지킬 수 있게 해 놓고서는 관군을 포위하였다. 시일이 오래 가자 청군靑軍이 모반하고 보안첩목이普顔帖木爾가 통수하던 황군黃軍도 모반하여 적세에 합류했다.

이리하여 세가 커진 적이 협공해오니 성중에는 식량이 떨어졌는데 오덕수吳德琇가 1만 곡斛의 군량을 운반해오다가 적에게 약탈되었고 포위공격은 더욱 급해졌다. 총병 두요는 하비下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군사를 안무하며 출병을 하지 않는데 무릇 사자使者를 열아홉차례나 보내 급박함을 고해도 모두 들어 주지를 않았다. 성중에서는 굶어 죽는 자가 넘어지면 곧 취하여 먹고 그 시신을 초목이며 소라와 조개, 개구리와 제비 · 까마귀에 말안장 · 가죽신 · 말다래까지도 다 먹어 남는 게 없으며 부자와 부부 및 노소간에도 죽으면 서로 먹었다. 집을 허물어서는 땔나무를 삼으니 사람들이 다 노천露天으로 거처하고 마을과 길거리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랐다. 힘이 다하여 성이 함락되자 저불화는 사력으로 싸우다가 부상하여 붙잡혀서는 적에게 몸이 토막났고 그 아들 반가伴哥가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부친을 구하다가 또한 함께 살해되었다.

제목 불화역투는 저불화가 사력으로 싸웠다는 뜻이다. 저불화는 원元나라 석루石樓 사람으로 자字는 군실君實이며 말이 적고 기국器局이 있어 중서사역사中瑞司驛使를 거쳐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에 회동염방부사淮東廉訪副使가 되었다가 순제順帝의 지정至正(1341~1370) 연간에 여영도汝穎盜와의 싸움으로 염방사廉訪使로 승진해 전사했다. 뒤에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항적고성진아리抗賊孤城盡餓羸 : 도적에 맞서는 외로운 성 모두가 굶어 파리하고
총병환시반시의摠兵環視反猜疑 : 총병은 둘러 살피며 오히려 시기와 의심만 하니
비부원절관군반蚍蜉援絶官軍叛 : 개미 같은 도움조차 끊어져 관군도 모반하는데
사수감심련불유死守甘心憐不遺 : 죽음으로 지킬 마음 달아 토막나 죽어도 여한이 없네
성중형극암황애城中荊棘暗黃埃 : 황폐한 성중은 누른 티끌로 앞이 안보이고
역진유능지불회力盡猶能志不廻 : 힘이 다해도 오히려 능히 뜻을 바꾸지 않다가
부자일조동운명父子一朝同殞命 : 부자가 하루아침에 함께 목숨 잃으니
충혼만고전감애忠魂萬古轉堪哀 : 만고의 충혼에 애처로움을 감당키 어렵네

194. 여궐자경余闕自勁

원나라 때의 이야기로 제목 여궐자경은 여궐余闕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목을 베었다는 뜻이다.

강회행성江淮行省의 우승右丞으로 있던 여궐은 안경安慶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경은 조그만 산 하나를 의지해 적침을 막는 형국이었고 호백안胡伯顔에게 명하여 이를 방수防戍케 하였다. 진우량陳友諒이 상류에서 유격해와 이 작은 산 하나를 직접 치고 덤비니 백안이 4일밤을 더불어 싸워 이기지 못하였다.

안강을 취한 적은 추격하여 박성薄城 아래에 이르렀다. 여궐이 군사를 보내 이를 눌러 막게 하니 적은 동문東門과 서문西門을 공격하면서 곧 울짱을 세워 일으키고 비루飛樓를 지어 성안을 넘겨다보면서 울려대는 쇠북소리가 땅을 진동시켰다. 여궐이 여러 장수를 나누어 맡겨 적을 막게 하였는데 주야로 싸우며 쉬지를 못했다. 적은 사면에서 개미떼처럼 모여드는데 외부에서는 한 갑병甲兵의 원군도 오지 않았다.

서문의 형세가 더욱 급해지자 여궐이 몸소 당하고자 도보로 창을 들고는 사졸의 앞장에 서니 사졸이 소리내 울며 이를 막았으나 창을 휘두르며 더욱 힘써 싸웠다. 이윽고 휘하 장수를 나누어 보내 세 문의 병사의 싸움을 독려케하고 스스로는 고군孤軍으로 혈진을 벌이면서 적의 머리를 무수히 베었는데 여궐 자신도 10여 군데를 찔렸다. 성이 함락되어 성중에서 불길이 일어나자 여궐이 이제 도리가 없음을 알고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는 청수당淸水塘 연못으로 떨어졌다. 여궐의 처 야복씨耶卜氏와 아들 덕생德生, 딸 복동福童이 다 우물에 투신해 죽고 성중의 백성이 서로 이끌고 성루城樓에 올라가서는 스스로들 사다리를 밀어던지고 ‘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맹세코 적을 좇지는 않겠다 ’고 하면서 불타 죽은 자가 1천을 헤아렸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여궐에게 충선忠宣의 시호가 내렸다.

여궐은 원나라 노주盧州 사람으로 자